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4월 30일(주일) 제1146호



영화로 만나는 작은예수

잊혀졌던 귀한 여선교사를 다시 만나다 ...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꼭 봐야 할 바로 그 영화, 전국 어디서나 단체 및 대관관람 가능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감동이 대한민국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개봉 첫날(4월 26일) 다양성 영화부문 예매율 1위를 기록했고, 지난 27일에는 누적 관객 1만 명을 돌파했다. 28일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5위, 전체 영화 예매율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개봉 첫날 관객 수는 3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기독교 영화 '순종'의 첫날 관객이 2천 5백 명이었고, 지난 4월 7일 개봉한 기독교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의 첫날 관객이 1천명인과 비교하면 순항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본 관객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극장가에 선교사 서서평의 감동이 휘몰아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여성 선교사의 삶을 다룬 영화자체가 새롭고,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온라인에서도 화제다. 네티즌들은 "기존 기독교 영화들과 달리

역지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덤덤하게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극장개봉 전 온누리교회와 시사회에서 상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사회 당시보다 더 정교한 편집을 거쳤다.

신수정 성도(서대문공동체)는 "새벽기도회 때 봤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의 깊이가 더해졌다"고 했다.

믿지 않는 관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여성과 약자들의 곁에서 평생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정말 크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사랑과 희생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지 않았거나 온누리교회나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이미 봐서 다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

는 성도들은 지금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좋겠다. 더 새로워지고, 감동은 배가 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전국 극장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단체 및 대관관람을 신청하면 가격을 1~2천 원 할인받을 수 있다.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대관관람은 1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관관람을 신청

<거점극장 상영시간표>

극장	5월 1일(월)	5월 2일(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9:20, 12:45, 16:00, 20:20	추후 업데이트
롯데시네마 용산	8:35, 11:50, 20:00	8:00, 8:15, 14:20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8:00, 9:45, 11:30, 14:10, 15:55, 19:30	9:45, 11:30, 13:15, 15:00, 17:40
롯데시네마 청량리	9:30, 13:00, 16:25, 19~20시(미정)	추후 업데이트
롯데시네마 노원	8:15, 10:00, 13:45, 17:00, 19:50	8:15, 10:00, 13:30, 17:00, 19:40
서울극장	9:30, 12:15, 19:10	10:30, 12:15, 16:20

상영 극장과 시간표는 <https://shepping.modoo.a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상영 일정과 별개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서울권 성도들은 영화상영 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극장을 이용하면 더욱 유익하다. 서울 외 지역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인근 롯데시네마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의: 010-8895-469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5월 7일은 대중교통 이용, 헌혈하는 날 주차스티커 발부 받은 차량만 주차장 이용

5월 7일 뜻 깊은 행사가 두 가지나 실시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과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 함께하는 헌혈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행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고 있는 캠페인이다.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성도 외에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 함께하는 헌혈행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 공터(구 골프연습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체 건강

한 16세부터 69세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 헌혈에 참가하면 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해주고, 헌혈증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대한적십자사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혈액보유량이 부족한데 연휴까지 겹쳐 혈액보유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행사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한편 두란노서원은 5월 7일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음 주(5월 7일) 신문은 연휴관계로 휴간합니다.

장애인 화가들이 그리는 세상

그림으로 소통하고, 편견 없애고, 공감 더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다.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신지체는 물론이고 언어적 결함과 행동장애까지 있어 기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대표적인 편견이다. 물론 기능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증명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감은 더하는 화가들이다. 서빙고 예수사랑부 박혜신 자매와 부천 사랑부 최주림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어머니 김명희 권사와 박혜신 자매(왼쪽), 최주림 형제와 어머니 오소영 성도(오른쪽).

눈이 초승달처럼 작아지고 이가 활짝 드러날 만큼 환하게 웃는 모습이 꼭 천사 같다. 박혜신 자매의 첫인상이다.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가진 그녀가 벌써 서른이 넘었다. 200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열고 있다. 단체전, 초대전, 개인전 등 작품 활동도 다양하고 활발하다. 지난해 8월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녀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아주 특별한 전시회였다. 국내 최초 미술 월간 지이자, 미술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잡지 <미술세계>의 초청으로 이뤄진 단독 기획전이였다. 유명 화가들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유서 깊은 인사동 갤러리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뤘다.

그림으로 치유하는 박혜신 화가

박혜신 자매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세 돌이 지났을 무렵 장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 김명희 권사는 조바심이나 욕심 내지 않고 딸을 있는 그대로 키우려고 애를 썼다.

“당시 우리 가족이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어요. 혜신이는 말은 잘 못하지만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런 혜신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어요. 마음껏 자연을 즐기게 해주려고요. 지금 혜신이가 그리는 모든 풍경들이 그때 자연 속에서 놀던 기억들이더라고요.”

박혜신 자매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 동네 미술학원에 다니면서부터다.

“다른 학생들을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술학원에 보냈어요. 어느 날 혜신이가 꽃그림을 보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때부터 선생님이 혜신이가 꽃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혜신이가 그린 그림을 선생님께서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박혜신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002년 2월, 미술학원 선생님이 그동안 그린 그림을 모아 구청 한 칸에서 조촐한 전시회를 열어줬다. 박혜신 자매의 고등학교 졸업기념 축하선물이였다. 그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열었다.

박혜신 자매의 그림에는 일반 화가들의 그림

에서는 볼 수 없는 감성이 들어있다. 그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이구동성 이렇게 말한다.

“그림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힐링됩니다!”

박혜신 자매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선물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명희 권사가 딸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도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신이가 그린 그림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화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그러나 묵묵히, 최주림 화가

분명 그림 속 자동차인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 눈길을 사로잡는 원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실제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마니아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다. 그만큼 강렬하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부천 사랑부 최주림 형제다. 자동차에 완전히 푹인 22살 앳된 청년이다.

그는 작년 열린 제1회 국제장애인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프로작가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는 2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주림이가 4.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폐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치료를 받았어요. 약기도 시켜보고, 미술 치료도 해봤고요. 다행히 주림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최주림 형제의 어머니 오소영 성도는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고 따라 그리기를 가르쳤는데 데생하는 선이 빼빼빼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특수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했어요.”

어머니의 수고가 빛을 발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특수아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덕분에 주림이의 그림 그리기 실력이 늘었어요. 그동안은 조그만 스케치북에 빼빼빼뿔하게 그린 게 전부였는데 큰 캔버스에 자동차도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칠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주림 형제의 닉네임은 ‘Turtle 96’이다. 96은 그가 태어난 해를 뜻하고, Turtle(거북이)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묵묵히 자기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 최주림 형제의 어머니 오소영 성도에게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하는 소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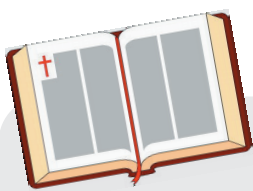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주림이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미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당장이라도 보낼 텐데 말이죠.”

거북이는 느리다. 그러나 동화 <토끼와 거북이> 속의 거북이는 성실함과 뒷심으로 약삭빠른 토끼를 이겼다. 박혜신 자매와 최주림 형제는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속도가 느린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느리지만 분명히 자기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의 삶을 응원한다.



- ① 강소현(서빙고 예수사랑부) 작 고양이.
- ② 이건(서빙고 예수사랑부) 작 꽃들의 합창.
- ③ 한호경(서빙고 예수사랑부) 작 꽃들의 노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나쁜 짓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악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 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안의 우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어떤 몽상을 자주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우상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더 교묘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풍신의 한군데를 누르면 또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길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할 때 우상이 사라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강 유역을 지나면서 연못을 지나가는데 거머리들이 온몸에 붙어 때려고 하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거머리를 억지로 떼면 피부가 손상되고 감염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오일을 넣은 따뜻한 물에 담그면 거머리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우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때려고 해봐야

또 다른 우상이 생기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대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집중하면 모든 우상의 거머리는 떨어져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품 ‘피에타’를 망가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손상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예술가들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작품을 복구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았습니 다. 수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안목을 가졌는지를 상상하며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작품을 복구하기 시작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가깝게 복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에타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마음, 안목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깨진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에서는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데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4-5절).

가나안에 거하던 주민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높은 곳이나 숲이 우거지고, 나뭇가지가 울창한 큰 나무 밑이나 바위 밑에 신당을 짓고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형태로 경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 하는 모습으로 경배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 해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지키도록 하라”(13-14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랜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 한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는지를 두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후대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시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만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각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한곳에 모이도록 하신 그 시대의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의 형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지만 형식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은 때로 무서운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제사제도와 장소를 정해주심으로써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규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무교회주의가 위험하다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거룩할까요.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도 집에서 혼자하면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일부러 교회 와서 줄기도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곳이나 신당을 지으면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경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질 경우에 무교회주의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꼭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야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산으로 들로 알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과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 중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함께 모여서 경배하라는 것은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위험에서 거룩하게 훈련되고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에 모이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경배

신명기 12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되 기쁨으로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쁨의 경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킬 때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배가 기쁨이 되어야지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얻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자 존재 목적이기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서 하는 회개만 있다면 죄의 매혹적인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회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쁨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13면에 계속)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양지 온누리와 청강대의 아주 특별한 만남



청강문화산업대학생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전달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과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교회가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대학생들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서로에게 이보다 좋은 만남이 없다. 지난 20일에는 학교생활에 지쳐있는 대학생들에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청년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라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학생들의 호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600개의 부활절 기념 달걀이 10분 만에 동이 났다. 설마 달걀이 좋아서였겠는가.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대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교계에서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만큼 교회를 떠났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학캠퍼스 복음화율이 3%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치명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에 따르면 20~24세 청년 중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다. 그런데 왜 대학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캠퍼스 실제 복음화율을 3% 미만이라고 보고 있을까. 나머

지 15%의 기독교대학생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교회 가는 것보다 노는 것이 좋아서, 공부하기 바빠서, 취업 준비하느라,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쾅쾅 숨은 것일까. 그 보석들을 찾아야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는 대학캠퍼스 복음화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말을 듣고 청년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캠퍼스를 찾아가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 노력들이 아주 조금씩 열매 맺고 있다.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청년들이 교회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청강대 신미희 교수는 “예전에는 선교단체나 동아리 활동이 왕성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려했다. 실제 청강대학교에 3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C.C.C에서 활동하는 학생이 30여 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을 대학생들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겸 형제(조리과)는 “요즘 혼밥과 혼영 등 혼자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무리 혼자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해도 괜찮을까. 이에 대해 청강대 채플과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제 목사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면서 “누군가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이 청강대를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신앙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곁에 든든한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의미가 크다.

안태환 장로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하면서 두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돌봄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대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신앙을 회복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캠퍼스에서 만난 청년들의 표정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들딸 만난 부모처럼

캠퍼스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빛을 볼 수 있는 사역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원들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다. 진지함이 배어 있을 뿐이다. 백승호 집사는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학캠퍼스를 방문했는데도 긴장이 된다”면서 “청년들이 아무리 복음을 배척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은 중간고사가 한창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한껏 긴장돼 있었다.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은 캠퍼스 중앙 호수에 자리를 잡고 부활절 기념 달걀 나눔 행사를 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어 보이던 팀원들의 표정이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을 보자마자 화사해졌다. 마치 아들딸들을 만난 부모 같았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부활절 달걀은 덤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은 만나는 학생들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다. 복음을 전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국내전도팀과 복음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교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던 학생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감사합니다.”, “고맙워요.”, “아멘!”

대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에 전도팀원들이 더욱 힘을 냈다. 이해정 집사는 “장난기 섞인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도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무척 좋아했다. 민예림 자매(식품영양학과)는 “어른들이 찾아와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니 힘이 난다”면서 진심으로 고맙워했다. 김에스터 자매(애니메이션과)도 “순모임과 공동체 생활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에게 양지 온누리교회를 추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 온누리교회와 청강대 학생들의 아주 특별한 만남은 계속 이어진다. 청강대 드림온교회와도 동역할 것이다. 신앙 멘토가 필요한 청강대 학생들을 위하여 오늘도 양지 온누리교회가 간다.

목회제안

대학캠퍼스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 다음 세대야 할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과 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대학입학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일 성수는 물론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는 가난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

캠퍼스에서 기독교 강의를 하며 주일마다 대학청년들과 예배를 드린 지 3년이 지났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교회에 한두 번 빠지다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것, 둘째 모교회에서 그 청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

너진 것을 모른다는 것, 셋째, 대학입학과 동시에 이러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고등부에서 대학청년부로 올라가는 많은 청년들이 양육과 돌봄,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목사님~ 000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청년이 그 학교에 입학합니다. 기숙사 생활하게 된 저희 교회 000 지체를 신앙적으로 좀 살펴주세요!”

지난 3년 동안 이런 연락을 한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교회와 학교를 신앙적으로 이어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회와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캠퍼스에 있는 대학청년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대학교 때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에서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교회가 대학캠퍼스를 입양하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매년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해서 전도하고 청년들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절 시즌에는 달걀과 함께 복음과 사랑을 전해준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면 청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대학광장에는 활기가 넘친다. 여름에는 생수를 나눠주면서 더위에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다. 작년에는 캠퍼스 선교를 위해 채플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주셨다.

양지 온누리교회의 섬김 이후 교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기독교에 무관심하며 부정적이었던 학생들도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양

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캠퍼스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와 청강대의 관계처럼 선교단체 및 기독교아리와 동역하는 지역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미전도 종족과 나라를 입양하는 것처럼 한 교회가 한 캠퍼스를 입양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대학 캠퍼스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원제 목사
(청강대 드림온교회 담임)

탈북민 복음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

이번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는 통일 이후 탈북민들의 역할을 가능해보는 일종의 모의고사였다. 지난 22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된 통일세미나에는 국내외 탈북민 사역자, 시민,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교회가 탈북민 복음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한국 교회 탈북민사역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나누고 대안을 논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탈북민 어린이들을 위한 예품 어린이 도서관사역.
◀ 통일세미나 현장.

통일의 마중물, 통일의 재원, 통일의 주역, 통일사역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거론되는 탈북자들의 복음화는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진행됐을까. 이번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에서 가장 중점을 둔 주제다.

탈북자들이 교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탈북자들이 대거 발생한 1990년대 중반부터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1995년부터 탈북민사역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은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탈북민들을 복음화시키고, 사역자로 양성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진 탈북민사역은 주로 몇몇 대형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탈북민사역이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탈북민 양육은 난제로 꼽히고 있다. ‘끝도 없이 퍼주는 사역’이라며 두 손 두 발을 들고 탈북민사역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층적으로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과연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봤다.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탈북민 접근성’, 2부는 ‘탈북민 복음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핵심은 탈북 과정과 국내 정착 초기의 돌봄

통일세미나 1부는 조기연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 북한연구원 원장)가 사회를 보고, 김영식 목사(남서울은혜교회 통일선교), 이발립 목사(열방샘교회), 허원희 목사(온누리사역담당)가 발표를 했다. 황문규 목사(하나원 하나교회), 이수봉 목사(원당왕성교회), 조요셉 목사(물뚫동산교회)는 토론을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탈북민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들은 “탈북 과정과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초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돌보느냐에 따라 탈북민 복음화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목사는 하나원에서 교회를 다니던 탈북민들이 퇴소 이후 돌봄이 제공되지 않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초기에 어떻게 돌봄을 행해야 하는지를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했다.

“남서울은혜교회는 하나원 하나교회 예배를 섬기면서 탈북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의 주거지를 함께 찾아가 청소하고 예배드리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탈북민들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적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원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문규 목사도 탈북민들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원에 오는 탈북민 중에 70%가 교회에 출석한다”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려면 정착 초기부터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돌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황 목사는 또 탈북민 정착지역에 따라 지역 교회의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상당히 많은 탈북민들이 지방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지방 교회들은 탈북민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북민사역을 먼저 시작한 교회들이 거점교회가 돼서 탈북민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발립 목사는 해외 탈북민사역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중국에만 5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탈북 과정에서 선교사나 먼저 복음을 접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양육을 받은 탈북자 80% 이상이 한국 교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보다 해외에 있을 때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목사는 “탈북민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가난, 인신매매, 복송 등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교회와 선교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탈북민복음화를 돕는 인

신매매 탈북여성 방문사역, 북한선교센터 사역, 구출사역, 북-중 국경사역, 탈북아동 금홍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허원희 목사는 탈북민사역에서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 목사는 “탈북민 여성들은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자녀교육만 책임져 주면 교회에 나온다”면서 “복지가 교회와 탈북민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착점이기 때문에 탈북민사역은 복지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돈과 자녀교육이 탈북민 복음화를 위한 방법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과 탈북여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여성공방’ 사역의 실패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방과 후 공부방과 여성공방사역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 후 공부방’에서는 학업 뿐만 아니라 신앙훈련, 예절교육, 정서교육, 독서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예품 어린이 도서관 사역’도 시작했다. ‘여성공방’은 돈을 벌면서 신앙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모델로 변화 중이다. 탈북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운영 중이다.

토론자 조요셉 목사는 국내외 탈북자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조 목사는 “어느 탈북자가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사례를 들면서 “탈북민사역에서 접촉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먼저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있는 성장 필요

통일세미나 2부는 오성훈 목사(PN4N)가 사회를 보고, 최광 목사(황금종교회), 김상수 목사(하나공동체),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가 발표를 했다. 토론은 전사라 사모(느헤미아다음학교), 마요한 목사(새희망나루교회), 박상식 목사(여의도순복음새평양교회)가 했다.

통일세미나 2부에서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탈북자들을 제자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나눴다.

최광 목사는 탈북자 양육방법으로 ‘성경통독양육’을 소개했다. 성경통독양육은 1990년

대부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양육방법이다. 일정기간 동안 성경을 50독이나 100독 하는 사역이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에서 400여 명이 성경통독100독을 했고, 목회자 100명, 선교사 80명, 순교자 17명을 배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국내에서 66명이 성경통독양육을 받았고, 7명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토론자 박상식 목사는 성경통독양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성경통독양육은 그 성과가 매우 좋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경통독양육을 받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교회, 예배, 공동체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경통독양육에 공동체사역과 합숙훈련 등이 더해지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김상수 목사는 하나공동체 사례를 들면서 양육과 사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공동체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예수제자학교 등의 양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탈북민들이 직접 전도사역, 병원심방, 수련회, 이주민 사역 등에 참여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광민 목사는 탈북민 개개인이 제자화 되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를 제자화 시키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동체는 남북한 연합공동체를 의미한다. 한국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탈북민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성도들이 서로 양육하고 훈련받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실시한 탈북민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년 이상 쌓인 한국 교회의 탈북민사역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탈북민 양육 지침서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세미나를 마무리 하면서 박상식 목사는 탈북민사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효과적인 양육과 제자화도 중요하지만 탈북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적어도 한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양육으로 탈북민들을 진정으로 복음화 시켜야 합니다.”

특집_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을 찾아서

1. 프랑스 개혁신앙가 피터 왈도
2. 영국의 개혁신앙가 위클리프
3. 스위스의 개혁신앙가 존 칼빈
4.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1517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치로 내걸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위선에 맞섰다.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쇄신을 요구한 종교개혁가는 루터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가들이 있다. 이기훈 목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종교개혁의 참 의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글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날마다 개혁(Reform)되는 신앙

개혁정신 살려 새로운 500년을 향하여!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제자양육,
성동광진공동체 담당)

종교개혁이란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즉,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당시 교회가 잘못된 길을 아주 멀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당시와 같은 상황이었다. 신앙은 변질되었고 삶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신앙은 심중팔구 형식화되고 삶은 무능력해지기 쉽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흥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성령님이 주도하신 교회개혁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섯 가지 이유

당시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했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에 행위를 덧붙였다. 대표적인 교리가 연옥설이다.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교리는 교회가 재정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베드로성당 건축비 충당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대행업자와 교회가 50%씩 나눠가짐으로써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둘째,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다.

주셨으며 베드로를 잇는 것이 교황이기 때문이요, 또한 교황은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교황이 출현하면 수많은 가톨릭교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졌다고 가르쳤다. 개인의 성경 소지를 금지시켰고,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더 큰 불법으로 간주했다. 교회는 교인들을 성경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 모든 성도들이 읽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혁자들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삼았으나 가톨릭교회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도 정경으로 채택해 현재 우리보다 9권을 더 가지고 있다.

셋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 곧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쳤다. 교회의 전통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도 자국어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라틴어로만 드리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담을 높이 쌓거나 건물을 하나의 성처럼 웅장하게 지었다. 유럽 여행 중에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그 규모에 놀라는데 그것은 구원관과 관련이 있다.

넷째, 사제들의 부패가 심각했다. 독신제도에서 고위층 사제들은 아내를 두었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낳은 자녀들에게 성직을 세습하는 사제도 있었다. 물질적 타락은 더욱 심했다.

어떤 사제는 돈을 받고 주교 자리를 넘겨주는 성직매매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자숭배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을 우상화하는 일, 성찬식에서 성도들은 떡만 먹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는 일종성찬을 시행하는 일 등 지금까지도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사제들의 힘이 보이지 않게 강할 수밖에 없었다. 사제들은 갑이고 성도들은 을의 입장에서 교회생활을 해야 했다.

다섯째, 교회의 직제가 잘못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해 사제들의 지위를 특권화 혹은 계급화 시켰다. 사제들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로 만들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만인제사장) 직분만 다를 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대로의 직제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했다. 목사는 설교를 중심으로 사역했고, 장로는 교회의 운영을 담당했으며, 교사들은 성인과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졌으며, 집사들은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섬기게 하였다.

여섯째, 예배 형식의 개혁이 필요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양식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순서만 빠졌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 중심이었다. 물론 그 형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배당 안에 온갖 성화나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고, 촛불의식을 행하고, 향을 뿌리는 등의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배도 개혁했다. 일단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었다. 칼

빈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강해 설교를 강조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엄숙함보다는 은혜로움이 컸다. 찬송도 회중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급하면서 예배개혁에 이바지하였다. 가톨릭교회는 그들이 선정한 성인이나 마리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죄도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런 제도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가르쳤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자들의 신앙과 사상을 거울삼아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은 손상된 기독교를 개선하려는 운동으로서 영어로 'Reform'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개혁교회 즉 'Reformed church'라고 부른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날마다 Reform되어야 한다. 오늘날 손상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 자화상을 그려봐야 한다.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에 신앙과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먼저 교회를 돌아보자. 담임목사의 세습은 과연 성경적이고, 교회 재정은 성경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교회가 해외 선교는 물론 이웃의 아픔과 연약한 이들의 고통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각 교단마다 총회장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교회 내 직분의 권력화와 신앙의 형식화 현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목회자들을 돌아보자. 목회자들은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는지, 교회를 성육신적 교회, 사회참여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자.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교회 일을 통해 이익을 행하는 사람은 없는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으로서 존경받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경계가 분명한지,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여겨지거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신앙개혁을 단행하실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혁정신을 살리면서 새로운 500년을 향하여 신앙여행을 떠나보자.

4차 산업혁명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결국 사람, 가정, 공동체의 문제 ... 교회만이 문제 해결 주체

1985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백투더퓨처'는 주인공 마티가 미래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는 2015년이다. 30여 년 전 사람들이 바라본 30년 후의 모습은 어땠을까. 스마트 안경, 디지털 카메라, 3D입체영상, 자동화 메뉴판, 지문인식기계, 태블릿PC,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드론 등 실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상상이 현실이 됐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또 어떤 상상이 현실이 될지 기대되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다. 과학자 이은일 장로가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미래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기쁨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한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화되면서 가사노동이 25% 줄어들게 되고,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로 2030년에는 교통사고율이 40% 감소하며,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73세였던 건강수명이 2030년이 되면 77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사노동이 감소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이 편리하고 풍요해졌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삭막해졌을까? 이것은 과학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에 미친 거대한 영향의 결과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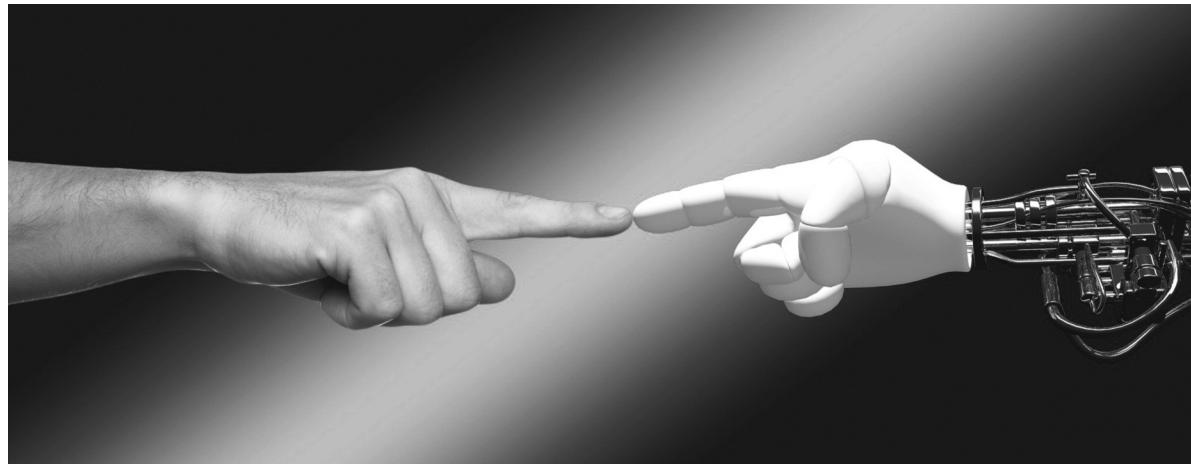
과학기술은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이었다. 현대인들은 압도적인 과학기술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버렸고, 지나치게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룬 현대문화는 더 빨리, 더 편한 세상을 추구하였고, 무엇보다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버렸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무엇이 나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생활은 편리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 자리를 빼앗길 걱정을 하고 있다. 이미 대규모 공장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진행되

어 공장의 규모가 커져도 고용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공장을 넘어서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올해 1월 매킨지글로벌 연구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얼마나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820여 가지 직업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 2,069가지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710가지(34%)의 업무를 향후 50년 내에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리사 73%, 기차나 법조인 22%, 의사와 간호사의 일 29%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학기술이 잘못된 것



인가? 힘든 일들은 로봇이 하고,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도약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의 사회체계, 교육내용 등 모든 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도전과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물질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전부라고 믿는 진화론자들은 인공지능보다 못한 인간이 살아남는 길은 인공지능을 뇌에 이식해 인공지능과 결합한 인간으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진화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1~4차 산업혁명의 득과 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차 산업혁명부터다. 증기기관차로 상징되는 1차 산업혁명은 공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급격한 도시 팽창을 가져왔다. 농경 중심의 사회가 도시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도시로 모여든 농촌 청년들에게 농촌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쓸모없어지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개개인의 기호보다 대중의 유행이 중요해졌고, 각자의 개성을 대량소비에 맞추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 각각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다. 사람이 인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탄생과 뿔 수 없다. 거대한 자본 없이는 과학기술을 공장으로 구체화시켜 산업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달음질치는

문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머니들이 직업을 갖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양육마저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대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수확해서 기쁨을 나누던 시대에는 공동체의 권위가 매우 컸다.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손해 보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동체는 없다. 모두가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정과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에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더 엄청날 수 있다. 정보화혁명 시대의 승자들인 일부 회사들(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풍요와 엄청난 박탈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로봇에게 소득세를 내게 하고 최소임금을 주어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만의 일을 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노동

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 노동의 의미, 지식의 가치, 자본의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하여 진정 새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는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수년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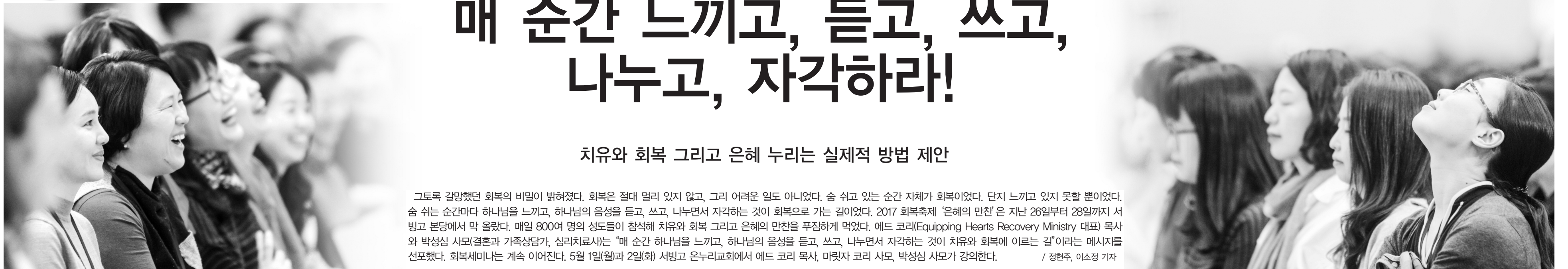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시대에는 평생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교사가 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과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자녀들을 새로운 개척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이다. 교회만이 과학기술이나 자본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직 교회만이 사람이 치열한 경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회가 되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자동화,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정보의 홍수가 이뤄지는 시대를 열었다. 좋은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악하고 음란하며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들을 언제든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정보만을 선택하면서 나와 기계, 지식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왜곡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가 빼앗긴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권위와 구조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고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던 시대에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줄 전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매 순간 느끼고, 듣고, 쓰고, 나누고, 자각하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 누리는 실제적 방법 제안

그토록 갈망했던 회복의 비밀이 밝혀졌다. 회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숨 쉬고 있는 순간 자체가 회복이었다. 단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고, 나누면서 자각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다.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빙고 분당에서 막 올랐다. 매일 8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의 만찬을 푸짐하게 먹었다. 에드 코리(Equipping Hearts Recovery Ministry 대표) 목사 와 박성심 사모(결혼과 가족상담가, 심리치료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고, 나누면서 자각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회복세미나는 계속 이어진다. 5월 1일(월)과 2일(화) 서빙고 은누리교회에서 에드 코리 목사, 마릿타 코리 사모,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박성심 사모

박성심 사모의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

잠정하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받으려 자각이 없을 때부터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하는 행위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for God) 살지 말고, 나와 같이(with God) 살자”고 말씀 하십니다. 사람들은 치유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 이나 허물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점을 고치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듣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치유는 잘못된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치유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상호적 감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Yes”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Yes”라는 음성을 천 번, 만 번 들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Yes”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Yes”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Yes”를 듣지 못합니다. 은혜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쉬기를 해보십시오. 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불어넣은 생기입니다. ‘아취’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취의 어원을 살펴보면 숨소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숨 쉬고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Yes”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립니다. 내 맞은편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감사의 자리가 더 많아 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Yes”라고 하시는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씁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과 운물맞추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골 3:15). ‘주장하게 하라’는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두렵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렵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심판처럼 호루라기를 불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네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느끼고 이해한다.” 평화는 나 혼자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 3:7).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잠 못 이루고,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학위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 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통이 작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이 작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외상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주관하

는 왼쪽 뇌는 고통이 끝났다고 하지만 감정을 주관하는 오른쪽 뇌에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신 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직면하는 것은 죽는 것처럼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누고 받기

좌뇌가 정보를 받는다면 우뇌는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모방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짓, 목소리, 표정, 타이밍을 흉내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상대방을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흉내 내고, 아름다운 것을 흉내 내서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 받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눈빛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누고 받으십시오.

코리 목사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올 때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사역의 핵심입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신장과 나의 신장이 똑같이 박동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를 어떻게 섬기느냐보다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잘 알지만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대에 집착할수록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이야기

은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성경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 게 변화된 존재지만 여전히 옛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종재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가 바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 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에 계속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늘 관계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감사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

에게 나누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잠정하기

은혜는 내가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이고, 기쁨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한 은혜는 기쁨과 평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안전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도 평강이 찾아오면 차분해집니다. 이것들이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계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이 나와서 즐거움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줍니다. 도파민은 에너지를 주는 신경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정하게 하는 신경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토닌입니다. 천천히 호흡할 때 세르 토닌이 분출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몸과 마음을 잠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뇌는 가장 기쁨과 가장 잠정함을 찾습니다. 진짜 기쁨과 잠정하기를 모방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술, 도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은혜, 기쁨, 평강과 연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과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줍니다. 내가 누구이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나에 대해 큰 영

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말씀에 반응하며 자랍니다. 그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반의존 극복하기

우리의 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디자인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로 충만한 기쁨의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합니다. 뇌에는 ‘편도체 위험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을 지배하는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자기 나름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뇌는 두려운 상황이나 사람을 피하거나, 숨거나, 공격하거나, 통제합니다. 두려움은 늘 동반의존과 함께 있습니다. 동반의존이란 지나치게나 건강하지 못하게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돌보도록 강요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중독자)을 돕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감정, 상황을 회피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사랑과 두려움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동반 의존에 빠진 사람들은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도와주지만 그 행위가 사랑에서 기인했다고 착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의존 현상은 중독을 지속되게 합니다. 사실 동반의존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반의존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공율하고, 다른 이를 보살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충분히, 잘, 오래, 강하게, 군세게 보살피



에드 코리 목사

면 바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의존은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 타인과의 애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질수록 두려움이 사랑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만찬 즐기는 네 가지 방법

첫째, 잠정하기(호흡운동)

숨을 4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쉰다.

둘째, 감사일기 쓰기

감사제목을 쓰고 왜 감사했는지 이유를 쓴다. 목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

▶ <감사일기 쓰는 방법 공유>

1. 하나님 _____ 해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내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_____입니다.
2. 사랑하는 딸/아들 (자신의 이름)야 _____합니다.

▶ 감사일기 쓸 때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Tip

1.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가?
2.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관성 있게 들리는가?
3. 지속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셋째, 감사이야기 표 활용하기

감사함을 느낀 일이 무엇인지 나눈다. 어떤 감정을 느꼈고, 신체적 반응은 어땠는지 느껴본다.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 감사이야기 표 나누는 Tip

1.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정을 표현한다.
2. 서로 그루하게 바라본다.

3.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눈다.

넷째, 생각의 운물 맞추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김용민 목사(W공동체), 김중호 목사(양재 예꿈), 변대섭 목사(서빙고 꿈땅), 배행삼 목사(하늘공동체), 송석근 목사(광명공동체)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음은 신임 목사들의 목사안수 소감이다.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김용민 목사
(W공동체)



배행삼 목사
(하늘공동체)



김중호 목사
(양재 예꿈)



변대섭 목사
(서빙고 꿈땅)

언제나 신실하고 정결한 목회자

2001년 JDS 1기 훈련을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은퇴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하자”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셨고 그 시기를 앞당겨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시작된 길이기도 더욱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사안수를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주시길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고 정결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 송석근 목사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목회자

목사안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셨는지 집중했습니다. 안수례가 끝나고 감사의 찬양으로 찬송가 310장을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겸양의 표현으로 상투적으로 써왔던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 2:15).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주의 부르심 붙잡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예수 잘 믿는 종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 김용민 목사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목회자

신학교 면접을 보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발걸음이 힘차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시간은 하나님께 저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뺨뺨이 서있었던 저의 고개가 많이 숙여졌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목사안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이 아닌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 배행삼 목사

예수의 흔적 나타내는 목회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가족들과 동역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중호 목사

겸손, 거룩, 충성 결단한 목회자

부족함 많고 연약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가족과 교회, 성도님들과 수많은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수식이 있던 날 저녁에 세례 받던 오래전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매 순간 감격으로 보내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교회와 영혼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길,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음을 봅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첫 감격을 다시 품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겸손, 거룩, 충성을 결단합니다. 오직 제 삶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 변대섭 목사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하여”

이스라엘 정계 지도자 방한 환영식 및 간담회



온누리교회와 KIBI, 샬롬 예루살렘 한인 크리스천연합회(KCSI)가 주최한 Mr.Sandberg(세계유대인연합회장, 이스라엘 과학기술 부장관, 국회의원)와 Mr.Reinstein(KCAC 대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50인 선정)의 방한 환영식 및 간담회가 지난 24일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개최됐다.

이번 친교모임은 한국 기독교계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리더십들과 상호 이해 및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이스라엘 대사 하임호센,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68명의 주요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친교모임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환

영사, 황우여 전 부총리와 김영진 전 장관과 조배숙 의원의 축사, 세계유대기초재단(Keren Hayesod) 소개, Mr.Sandberg와 Mr.Reinstein의 강연, 이스라엘 대사 하임호센과 송만석 대표의 답사, MOU 체결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Mr.Sandberg는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성경의 예언을 한국과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Mr.Reinstein는 “기독교만이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독교와 유대인의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유대기초재단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전 세계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귀환한 유대인들이 고국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9기 이혼자행복학교 개강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29기 이혼자행복학교가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2주차 프로그램은 1박2일 일정으로 해태크라운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혼 위기에 있거나 별거 중인 성도, 이혼한 성도,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에

서 하면 된다. 회비는 식사와 교재 포함 10만원이다.

이혼자행복학교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족의 이해, 못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김재영 팀장

010-2539-5665



도쿄 기 · 도 · 제 · 목

- 5월 1일(월) 일본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 5월 2일(화) 실행위원들이 서로 하나 되어 일본 교회가 연합하도록
- 5월 3일(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대회에 참석하도록
- 5월 4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 5월 5일(금)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 5월 6일(토) 행사 기간 중에 날씨와 교통,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기를
- 5월 7일(주일)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모집

65세 이상 부모 대상 ... 5월 22일 서빙고 분당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늘(30일)부터 주일안내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니 서둘러야 한다.

부모맞춤전도집회는 5월 22일 서빙고 온누

리교회 분당에서 막 오른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부모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풍성한 공연과 정성껏 차린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그맨 이홍렬,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 국악찬양팀 가야랑, 배우 오미희,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복드림 콘서트에서는 매년 300여 명의 부모들이 참석하고 있다. 결신율이 무려 80%를 상회한다. 지난해 행복드림 콘서트에는 282명이 참가해 196명이 결신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도서관, ‘부활절 3,4,5행시 공모전’

온누리도서관이 개최한 ‘부활절 3,4,5행시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주일(23일)에 있었다.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차세대 38명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랑상 4명, 소망상 10명, 믿음상 20명이 입상했다.

여유현(초3, 사랑상)

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사: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다: 다시 오시리라

임재은(초4, 소망상)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수: 수수한 차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 부모로 다시 오신 예수님
활: 활짝 핀 꽃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렵니다

이시원(중1, 믿음상)

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활: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절: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자!

서빙고 온누리 예배학교 개강

5월 14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온누리 예배학교가 5월 14일 개강한다. 6월 11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오늘(30일)부터 이전만 광장에 설치되는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온누리 예배학교는 교재공부와 조별 나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 순서의 의미, 예배와 삶, 결단과 헌신(예배의 적용) 등을 주제로 김재석 목사, 이민욱 목사, 문영재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57-0203

된다. 회비는 2만 원.

온누리 예배학교는 교재공부와 조별 나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 순서의 의미, 예배와 삶, 결단과 헌신(예배의 적용) 등을 주제로 김재석 목사, 이민욱 목사, 문영재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57-0203



한강공동체 야외예배 ‘웃음꽃 활짝’

지난 주일(23일) 서빙고동 근린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린 한강공동체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6개월된 신생아부터 81세 어르신까지 성도 26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이경찬 장로의 기도, 김해기 장로의 성경봉독, 문영재 목사의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빵 게임, 말씀검 게임, 명함 전달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도 이어졌다.

이경찬 장로는 “각 다락방과 순원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정지민 성도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뜻깊었다”고 말했다.

5월 7일 어린이주일 행사 개최

놀이기구, 달란트 잔치, 야외예배 등

차세대사역본부가 어린이주일(5월 7일)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개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교회 옆 공터(구 골프연습장)에 차세대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양재는 야외예배를 드리고 달란트 잔치를 벌인다. 도곡교육관 주차장에서는 푸드트럭,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나눔 등 야외행사가 실시된다. 부천은 가족캐리커처와 먹거리 행사, 수원군 교회주차장과 야외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 야외예배도 드린다. 대전과 남양주는 어린이를 위한 놀거리와 먹거리 잔치를 연다. 평택은 야외예배를 드리고 인형극을 한다. 인천과 강동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예배에서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한다. 양지는 Acts29 비전빌리지 축구장에서 차세대 연합예배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설치하고,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 야외예배도 드린다. 대전과 남양주는 어린이를 위한 놀거리와 먹거리 잔치를 연다. 평택은 야외예배를 드리고 인형극을 한다. 인천과 강동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예배에서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한다. 양지는 Acts29 비전빌리지 축구장에서 차세대 연합예배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장애인주일 기념행사

장애인주일이었던 지난 주일(23일)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에서 풍성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전만 광장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더치커피, 에코백, 미니화분, 머그컵 등을 판매했다.

정혜정 성도(예수사랑부)는 “아이가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면서 “앞으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5월 문화공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들을 소개한다. ‘노아와 함께 하는 어린이 찬양콘서트’와 뮤지컬 ‘라스트 찬스’다.

노아와 함께 하는 어린이 찬양콘서트는 5월 6일(토) 오후 5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꽃재교회에서 열린다. ‘아픔의 축복’, ‘나도 꿈꾸고 싶어요’, ‘열두 제자’ 등을 찬양한다. 모든 세대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뮤지컬 라스트 찬스는 연령층, 종교, 성별 상관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죽으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이다.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촌 세브라이프홀에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5시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4764-2379(찬양콘서트)
070-4140-8895(창작뮤지컬)

NGO 더멋진세상, 해외환자초청 치료사업

하지정맥류 앓던 세네갈 청년 압둘라이바 치료

지난 12일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이 해외환자초청 치료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인공은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온 압둘라이바(Abdoulaye Ba)다.

압둘라이바는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었는데 2015년 말부터 증상이 심해졌다. 압둘라이바는 걷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렀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의 해외환자초청 치료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압둘라이바는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의 한 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양쪽 다리는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지난 18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압둘라이바는 떠나면서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인사했다.

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압둘라이바는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의 한 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양쪽 다리는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지난 18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압둘라이바는 떠나면서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인사했다.

의료재단 ‘YAKKUM’ 온누리교회 방문

인도네시아 의료재단 ‘YAKKUM’ 관계자 30여 명이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의료재단 ‘YAKKUM’은 11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병원 12개, 대학 3개, 이동식 의료센터 3개가 있다.

인도네시아 의료재단 ‘YAKKUM’은 한국 의료계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선교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방문했다. 온누리교회 외에도 아산병원, 세브란스, 전주대학교 등도 방문했다. 지난 28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CMN, 융합선교팀과 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재단 YAKKUM 이사장 다니엘 푸디위보 박사는 “온누리교회의 환대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문을 넓히기 위해 방문했다. 온누리교회 외에도 아산병원, 세브란스, 전주대학교 등도 방문했다. 지난 28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CMN, 융합선교팀과 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재단 YAKKUM 이사장 다니엘 푸디위보 박사는 “온누리교회의 환대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4월 세례자

■서빙고	■양재	대학청년
신기섭 451017	김경선 630420	■요셉
신현갑 750413	김필순 611210	유아
옥현주 741006	입교	왕예나 150923
이소영 700407	최혜리 970121	왕상원 김지예
조성은 830609	유아	
유아	곽 윤 160504	■허브
권구준 160308	곽홍석 백지연	유아
권용민 김지현	김윤준 150220	배은성 160425
김승진 160106	김무재 권성란	배행삼 강영이
소태영 공진선	김지안 160215	입교
김준우 160625	김동인 박가영	김희재 931016
김종형 주세롬	김하울 160219	박세원 940615
김지안 160415	김성우 이강은	박지윤 970107
김승필 윤지은	안 건 150401	홍지은 930405
김하울 150624	안지환 이영은	홍채은 980817
김민석 김민선	안 유 161130	
도현민 151022	안지환 이영은	■하늘
도유석 황다혜	오서울 161004	조민정 910225
문지우 151215	오세운 이유민	입교
문정환 백혜나	유아린 160510	박연수 940713
박지오 160722	유홍석 김윤아	
박두산 고민정	이라연 150717	■Pole2
윤채훈 150609	이용승 윤하음	한기석 940305
윤현호 윤세운	이서윤 160128	
이하진 150520	이기범 고은희	■SNS
이주형 박기선	임사랑 160308	김미성 880522
조소유 160323	임춘식 김영순	국민서 870201
조한무 정유진	임소망 160308	김수진 820616
홍예준 150524	임춘식 김영순	입교
홍진석 정주영	임예호 160325	장영림 850109
홍지후 160708	임형수 김지영	유아
홍성표 이지혜	정재하 161125	박은유 151129
	정리훈 한가진	박지후 김산하

아이스쿨 강좌 소개



/ 이원선 상담사(오르프 음악치료 강사)

오르프 음악치료 아시나요?

가수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아는가? 이 노래를 들으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연상되거나 실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 시절을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에서는 리듬, 멜로디, 박자가 어우러져 우리 마음속에서 연상이 일어나도록 한다. 음악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찾도록 도와준다. 분노,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음악치료를 통해 참아왔던 감정들과 마주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참가자가 아픔을 마주하게 하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처럼 안아주며 도와준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꾸 넘어지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질책하고 있거나 우울하고 무기력함 또는 중독과 히스테리적인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르프 음악치료는 독일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가가 만든 음악이론을 사용한다. 라인, 몸으로 만드는 타악기,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를 드라마로 만들어 재현한다. 음악활동에서 작

업했던 모든 자원들을 재구성한다. 일 년 동안 세 단계로 세미나가 진행되지만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필수는 아니다.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음악치료 과정을 통해 만난 팀원들이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한 성도님은 악기를 선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드럼을 선택하셨다. 장르와 상관없이 드럼만 연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드럼을 맘껏 두드리면서 속 시원함을 느꼈고, 그동안 분노가 얼마나 깊게 쌓여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오르프 음악치료를 경험하고 싶은 성도님들 중에 악보를 못 보거나 악기 연주를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다 환영한다. 음악치료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리듬, 박자, 멜로디를 배워가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지쳐있거나 힘든 분, 우울, 스트레스, 분노,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고 싶은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

일정: 5월 11일~6월 1일 매주 목 오전 10시
문의: 02-570-7536

양지 온누리교회 세레간증



/ 김창수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다시 태어나다

인생은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유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앞만 바라보고 달렸다. 그것이 내 60평생의 삶이다. 정말 숨 가쁘게 살아왔다.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기에 더 열심히 살 수 밖에 없었다. 내 인생의 전부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가끔 지인들이 교회를 가자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섞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당시 4살 밖에 되지 않은 손녀가 식사 자리에서 심각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같이 교회 다녀요!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 모르고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요. 같이 교회 다녀요!”

손녀의 말에 마음이 동했는지 못 이기는 척 양지 온누리교회에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런데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

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신기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나를 기다리셨구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주님께에서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이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 매주 말씀을 먹여주시는 도육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알려주신 임상희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준 사위와 딸 그리고 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윤석환 성도(용산공동체)

더 많은 사역 위한 믿음훈련

일본에서 생활하던 내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교회와 순도임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음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내게 단순한 믿음생활이 아니라 믿음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다.

양육자님의 코코아 같은 촉촉하고 따뜻한 배려와 기도가 참 좋았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동안 나 중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지난날 내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양육자님과 나눴고, 양육자님은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주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양육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와 공

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가정에도 소소한 변화가 있었다. 아이들이 성경구절을 외우는 나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아빠가 변했다”며 놀라워한다. 사랑하는 아내 내 신앙의 선배 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중에 오른팔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겹쳤다. 그렇지만 팔이 부러지고 수술을 받으면서 지체들에게 내가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 중보기도의 힘과 지체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체험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위한 믿음훈련을 쌓아나가고 싶다. 주님이 회사와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헌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하.세. 아카데미 수료 간증



/ 이정숙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일의 의미가 달라졌다

일은 내 삶의 존재 이유였다. 일을 통해 인정받고,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다보니 일중독에 빠지고 말았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탐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행복하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하나님보다 일에 매여 있었다. 그러다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일을 내려놓고 광야에 들어섰다. 광야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감이었다.

광야생활을 한 지 4년이 다 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일.하.세.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직업관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다. 일은 창조의 연속이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하.세.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을 해야 혹은 어떻게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다. 그럴듯한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최대한 섬기자.”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 그동안 일로 나를 입증하려했던 압박감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창조자의 동역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과 같이 애슬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내가 일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일했지만 이제는 일의 의미가 달라졌다. 인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표 없는 광야에서 갈 곳 없이 헤매던 나였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만났다. 여러 가지 사연과 간증이 있는 스테프들의 섬김도 도전이 되었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름 기둥이자 사랑이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기쁨으로 경배하라

된다.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두려워하는 회개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경배를 통해서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경배가 없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교묘하게 또 다른 우상으로 자라납니다. 우상을 내쫓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경배할 때 우상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7절).

복을 간구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으로 인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없는 간구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간구만 있는 기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못하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경배를 잃어버린 기도, 회개가 없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해보십시오. 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해보십시오. 수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

고 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송명희 자매님이 지은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불러 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성도들을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기에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비교적 적게 가졌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 가사는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둘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18절).

아들 딸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성안에 있는 레위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라고 합니다. 함께 먹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 홀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남종과 여종들이 함께하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주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면 종은 바깥에서 기다

렸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함께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 내 주변을 둘러쌉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경배공동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평등하고 동등한 자로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기뻐하기

셋째, 하나님이 주신 율례들을 따라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될 것이다”(28절).

하나님이 주신 율례에 따라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은 삶속에서의 경배입니다. 흠어진 삶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히 13:16).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속에서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경배가 있고 흠어져 드리는 경배가 있습니다. 삶속에서 흠어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배는 선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제1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삶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드리는 경배든 흠어져 삶속에서 드리는 경배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삼국통일과 후삼국통일 그리고 남북통일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남북통일이 위협이 되거나 적어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매우 타당한 말이지만 역사가 말해 주는 통일은 조금 다르다. 역사는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또는 군사적 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우리 역사상 2번의 통일을 겪었다. 신라의 삼국통일(676년)이 하나고, 그 260년 후 후삼국통일(936년)이 또 다른 하나이다. 외국의 경우 베트남(1975년)과 독일(1990년)의 통일이 있었다. 이 사례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을 참고해서 정리했다.

삼국통일은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여 비로소 한민족을 형성함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운 민족사에 빛날 업적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를 믿음으로써 사귀고, 살생(殺生)을 삼가고, 싸움에 임하

여 물려서지 않는 정신이 그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첫째, 삼국통일은 동족이라는 개념이 없던 세 개의 다른 국가를 당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 정복·통합한 것으로 평화적 통일이 아닌 무력통일이었다. 둘째, 삼국통일이 영토 면에서는 완전한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백제의 영토는 모두 확보했지만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고구려 영토는 원산과 대동강을 연결하는 선 이하만 차지한 채 대부분을 포기했다. 이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염원과 다르다.

한편, 고려 왕건의 후삼국통일은 세 가지 긍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태조 왕건은 처음부터 고구려를 계승하고 북방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정신에 뿌리를 두었고, 둘째, 남쪽으로 신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포용정책과 끈기 있는 국력 배양과 주변 대국을 이 용하는 책략으로 민심을 얻어 통합을 이루었으며, 셋째, 무력충돌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 신라의 왕족과 유신들을 정치적 보복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향후 1,000년 이상 우리 민족

이 동족 의식을 키워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고려의 통일은 포용의 유화정책과 국력배양, 선정과 지략으로 민심을 얻어 이웃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게 만든 결과이다.

외국의 예로 베트남 통일은 어떤가? 베트남 전쟁은 후반에 월맹군이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베트남 유격대가 부패한 월남정권에 대항함으로 시작되었다. 베트남 전역 8만 명이 열악한 화력과 장비를 가지고 엄청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백수십만의 월남군, 미국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15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승리했다. 베트남과 월맹에 의한 무력통일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나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패한 월남정권은 민심을 얻지 못한 반면 베트남군은 가는 곳마다 선정을 펴 민심을 얻은 결과가 아닐까 싶다.

독일의 통일은 막강한 서독의 경제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서독정부와 서독국민의 성숙한 도덕성과 문화의식에 의해 무력 없이 이루어졌다. 만약 당시 동독 당과 정부요원, 군

경간부들이 서독에 흡수되면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대항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 요원들은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해외 탈출이나 망명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도덕적 우위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폴 수상 등 서독의 리더들이 크리스천이었으며, 통일을 주도한 동독의 평화시위가 라이프치히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남북통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서 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사랑과 포용의 정신으로 교회가 북한을 끌어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윤영섭 장로
(통일위원회)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일시: 5월 13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콘서트를

접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anam73@onnuri.org로 발송

문의: 남승도 간사(02-3215-3216)

19기 치유사역자스쿨

기간: 5월 11일~7월 13일 매주(목)

시간: 매주 목 오후 7시~10시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콘서트를

접수: 온누리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의: 010-7388-9900

창조과학 국내탐사 모집

대상: 교회 성도 및 공동체, 가족

일시: 5월 13일~14일(1박2일)

장소: 예수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 고성

공용박물관 외 (교회집결)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3869-7785)

CMN Bee팀 여름국내사역 안내

일시: 8월 24일~27일

장소: 제주도

대상: 의료 및 미용사역에 관심 있는 분

문의: 김선아 (010-6773-2136)

CMN 드림팀 여름아웃리치

일정: 인도네시아 8월 12일~17일(140만원)

스리랑카 8월 12일~18일(160만원)

모집: 의사, 약사, 간호사, 미용사 등

문의: 우승엽(010-4230-1474)

중국어 개인교습 모집

강사: 중국어능력평가 고급

대상: 중국어 개인교습 받을 성도, 학생

문의: 한터 02-3463-968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배: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방: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8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름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분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의료선교부(CMN) 해외 여름 아웃

리치 모집

일정: 7월 8일~17일

지역: 아프리카 케냐

모집: 치과과, 소아과

문의: 오현병 간사(010-5257-4566)

두란노 성서지리 1기 (신약)

일정: 5월 12일~7월 14일

시간: 10



예매하기

다양성 영화 예매율 1위! 관객들의 극찬 속 절찬 상영중!

네티즌 평점 9.81



(NAVER 영화 평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객 평점 9.62



(NAVER 영화 평점)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도 제 자리에서 담대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강미라 성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천천히 평온하게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 삶이 무엇보다 감동이었습니다.”

박한재 권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대학청년부



순복음 강북교회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선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허브공동체)

“무척 감동 받았습니다. 남은 생을 서서평 선교사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김해순 구역장 (순복음 강북교회)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인생영화” ★★★★★

“내용과 삶 자체만으로도 만점 이상의 드라마” (bkg****)

“두 번 세 번 다시보고 마음에 새기고픈 영화입니다” (wnaa****)

“몇 번을 봐도 감동있는 서서평. 이 시대에 귀한 영화입니다” (swir****)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울림으로 심장이 뛰다” (henn****)

“방향을 잃은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 (sapp****)

“영화 모든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먹먹하네요” (dozi****)

“좋다고 평가하는 것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jers****)

“헌신과 희생이 변혁을 일으킵니다” (hds****)

“나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알 수 있는 영화” (sooy****)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 (wit****)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것 같은 감동입니다” (dal****)

“아무리 가져도 행복한 이가 적은 지금.. 진정한 가치를 깨우는 영화” (jesu****)